

이 주의 투자 포인트 (11월 3일 주)

이번 주 증시는 1) 테슬라의 주주총회 결과가 성장산업과 AI테마 투자 심리를 좌우하고, 2) 미국 빅테크 vs. 소비재 기업의 실적이 시장 모멘텀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3) 경제지표의 결과 역시 연준 정책에 대한 방향성, 기대를 가능할 주요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AI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버크셔 헤서웨이의 현금화 소식이 전해지며 최근 시장 단기과열에 대한 피로감도 부각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1. 테슬라 주주총회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수요일(11월 6일) 열리는 테슬라 주주총회 핵심 안건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재승인과 이사회 재구성, 그리고 일부 주주들이 제안한 AI 사업 분리 및 거버넌스 강화 요구안
- 이사회에서 보상 패키지 부결될 경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시나리오 까지 시장에서 조명되는 등, 이번 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경영 신뢰도 회복의 분기점이 될 전망.
- 추가적으로 로봇택시 상용화 일정, 차세대 모델에 대한 구체적 언급 가능성도 기대감 있음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핵심 안건이 원활히 통과되고 테슬라 장기 성장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단기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주주 반발이 커지거나 리더십 리스크가 재부각될 경우 단기 약세 불가피 할 전망

2. 주요 실적발표 – AI 모멘텀과 소비 양극화에 주목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AI와 소비 관련 대형주 실적 이어질 한주. 팔란티어(Palantir), AMD, 퀄컴(Qualcomm),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아리스타 네트워크스(Arista Networks) 등 AI 인프라/반도체/클라우드 핵심주들의 실적이 집중 - 시장 기대치는 매우 높은 편
- 소비재 섹터에서도 맥도날드, 에어비앤비, 우버, 쇼피파이, 랄프로렌 등이 실적을 공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I 관련주는 '성장 둔화'나 'Capex 축소'가 언급된다면 리스크이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가능성은 낮아보임
- 소비재는 고소득층 중심의 견조한 소비가 유지되는 반면, 중저소득층 소비 둔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지속되는지가 관건이며 이에 따른 종목 별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

3. 가격, 고용, 소비자심리 지수 순차적으로 발표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이번 주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고용보고서(Nonfarm Payrolls), 소비자심리지수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리인하 및 FOMC 직후 주요 실적 뉴스가 많은 시점으로 집중도는 평소 대비 떨어질 개연성도 있음
- 다만, 이번 지표들이 예상보다 약세라면 이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되어 성장주 랠리 지속 가능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